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익산시, 결혼이민자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익산시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첫째는 기존 50%에서 70%로, 둘째 이상은 7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대상 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73만 8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가정은 양육 공백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돕고 육아 정보를 알려주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정부 지원 기준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범위가 확대돼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다. 다자녀가정 범위는 기존 12세 이하 아동 3명에서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을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익월 20일쯤 지역화폐인 익산다리로용으로 지원금을 환급 받게 된다.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1로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되며, 영아 돌봄과 관련된 종일제와 임시보육 및 등하원을 돕는 시간제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확대해나간다.

## 청소년이 정책 제안한다

### 익산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선정

익산시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확대해나간다.

시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서울 경기 등 12개 지자체가 선정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익산이 유일하게 선정돼 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이 협업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며 교육청, 각 학교, 청소년기관·단체 등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탄탄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 단계에서 자체적 의회 개최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번 사업은 청소년이 스스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 의제를 발굴·토론하는 민주시민 역량 제고의 장을 마련해 청소년이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택립 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의 특화된 청소년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청소년들이 눈으로 보고 발로 뛰어 만든 정책이 우리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청소년 다(多)이로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

### 군산시, 성장동력 마련 총력

군산시는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주요 사업에 대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주요 대상사업은 ▲산업용 자율주행 스키이트 플랫폼 개발(90억),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179억),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200억),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64억),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56억), ▲비응항 어항구조 확장개발(24억), ▲군산 선유도 방주봉 일원 종합정비(38억), ▲자연장지 조성사업(10억), ▲롯데신500 정비사업(20억),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60억) 등 신규사업 44건, 계속사업 65건이며, 총 109개 사업을 중점 확보



군산시는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주요 사업에 대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보고회에서 신규 발굴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반응,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해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익산=김판근 기자

## 익산시, 맞춤형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익산시가 관계 기관들과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위기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올해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사업의 상담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ASEBA 검사'의 이해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

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상담실무자들이 단순 해석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면담과 접근법을 통해 차후 사례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재난·자살·자해, 폭행 피해, 사망사고 등 심리적 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고위기 청소년들의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즉각적인 심리적 안정화와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즉시 출동 개입한다.

또한 고위기 청소년을 전달할 수 있는 숙련된 청소년 동반자 상담 인력 운영과 병원 치료비 지원, 등 사건 사고에 노출된 주변인과 간접외상을 경험하는 실무자의 회복 등을 지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농기센터, 맥류 출수기 병해충 적기방제 당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맥류 출수기에 따른 붉은곰팡이병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한 적기방제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보리 출수기는 4월 21일로 맥류 생육재생기 이후 저온과 가뭄으로 인해 평년대비 1~2일 늦어졌다.

맥류는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따뜻한 날씨와 잦은 강우로 붉은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맥류가 출수하는 시기부터 주로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출수 후 평균 기온 18~20°C, 상대습도 80%, 강우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적용약제를 안전사용기

준에 따라 살포하고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물빠짐을 좋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방제 시 보리와 밀 등 작물마다 사용되는 약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 보리와 밀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디페노코나졸·프로피코나졸 유제, 캡탄수화제 등을 이용해 이삭이 낀 후부터 10일 간격으로 2~3회 뿌리고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수확 20일 전까지 사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보리보다 밀에서 붉은곰팡이병의 발병률이 높고, 발병시 입은 피해도 더 크기 때문에 밀에서는 출수 전후로 꾸준한 방제를 해야 한다.

익산=김판근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지구의 날 맞아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전시

군산시는 지구의 날을 맞아 폐현수막으로 업사이클링한 10개 품목에 대해 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청원 및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소재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방법이다.

시는 폐현수막 재활용품 제작 기간제 근로자 사업을 통해 업사이클링한 정바구니, 고추 건조용 돗자리, 선풍기 커버, 반려동물 옷, 토시, 핸드백, 헤어밴드, 앞치마, 휴대폰 가방, 다용도 수납걸이 등 10개 품목에 대해 전시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자에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선거 이후 발생되었던 폐현수막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고심해왔다.

익산=김판근 기자

### 익산시,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신청

익산시는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품목은 두류(꽃겨름용 종 제외)와 참깨이며 ha당 60만원씩 지원된다. 최소 신청면적은 1천㎡이다.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 혹은 타작물(두류 외)을 재배했거나 논공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던 논에 올해 타작물을 재배한 농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심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는 신청 기간 내에 사업에 신청해줄 것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